언어, 제시형 36%로 대폭 늘어
수리 나, 그래프 문제 까다로워

■수능 영역별 출제경향 분석

과학탐구, 중상위권 점수 상승할 듯

15일 치러진 2008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은 영역별로 난이도가 엇갈렸다. 입시분석기관들은 언어와 사회탐구는 다소 까다롭게 출제됐으나, 수리와 외국어, 과학탐구는 지난해와 비슷한 평이한 문제들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언어영역=다소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능에 비해 문제 수준은 비교적 높았고, 적용과 활용 문제가 많아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제시형 문제가 지난해 20%에서 36%로 대폭 증가했고, 부정형 문제가 전체 50문항 중 25문항이나 됐다.

듣기에서는 다양한 유형과 소재를 통해 정확하게 듣는 능력의 증요성을 강조하는 문제가 비중있게 출제됐고, 쓰기는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많았다.

◇수리영역=대체로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됐으나 가·나형 일부 문제들은 변별력을 위해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리 가형은 기하부분이 쉽게 출제됐고, 수리 나형은 그래프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접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나형 모두 참·거짓을 구별하는 문제가 1~2문항 줄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었다.

◇외국어(영어)영역=난이도와 문제 유형, 문항 수 배정 등이 지난해 수능 및 지난 6·9월 치러진 모의고사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문해석만 정확히 할 수 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독해의 경우 문법적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학생은 혼동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빈칸 넣기는 언어 유추 능력을 요구했다.

◇탐구영역=지난해 수능에 비해 사회는 다소 어려웠고, 과학은 비슷했다는 반응이다. 사회탐구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의 내용을 묻고 있는 문항, '비정규직 보호법'을 소재로 활용해 노사 관계를 묻고 있는 문항, 호적부를 가족 관계 등록부로 변경하는 '민법 개정안'의 의미를 묻는 문항 등 시사적인 자료와 연관시킨 문항들이 다수 출제됐다.

과학탐구에서는 교과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 다수 출제됐다. 참신한 자료를 활용한 문항이 일부 눈에 띄었지만 까다롭지 않아 중상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등급제 공백 없도록 난이도 조절"

■정성봉 출제위원장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인 정성봉 한국교원대 교수는 15일 "전체적으로 이번 수능은 지난해 수능과 올 6월, 9월 모의고사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난이도 수준은.

▲지난해 수능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등급이 고르게 안배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 쉬운 문항, 중간 정도 문항, 난이도가 높은 문항을 골고루 배치해서 전체적인 등급분포가 골고루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올해는 성적에 등급만 표기되는데.

▲1등급이 많아 2등급이 없어지는 '등급 블랭크'가 없도록 신경을 썼다. 하지만, 한 등급 정도 비더라도 일반적 평가의 원리상 충분히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EBS와의 연계 정도는.

▲지난해와 비슷한데 약 80% 수준이 되도록 했다. EBS의 지문을 확장, 축소하거나 문항유형을 비슷하게 활용하는 방법 등을 썼다.

/연합뉴스

얼빠진 수험생들

지각에 수험표 미지참…엉뚱한 고사장 가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올해도 수험표를 집에 두고 오거나 엉뚱한 고사장을 찾아간 수험생이 많았다.

수험생 김모(18·고려고 3년)군 부모는 오전 7시30분 고사장인 광주시 동구 계림동 광주고 정문 앞에 도착한 뒤에야 아들이 수험표를 가져오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김군 아버지는 승용차를 몰려 집인 북구 연제동 H 아파트로 향했지만 출근길 정체로 여의치 않았다. 결국 어머니가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윤석용 경사가 모는 오토바이를 이용, 40분 만에 수험표를 가져왔다. 입실 완료시간인 8시 10분 직전에야 김군은 시험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수험표나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광주·전남지방경찰청 오토바이 '퀵서비스'(quick service)를 받은 수험생은 5명. 늦잠으로 3년 동안 고생한 걸 한 순간에 놓칠 뻔한 52명도 다급한 나머지 경찰차를 잡아타고 시험장에 갔다.

고사장을 찾지 못한 수험생도 많았다. 제 71시험지구인 해남지역에선 해남고·해남공고·해남중·해남 제일중 등 4곳의 시험장에서 강진·장흥·해남·완도지역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다. 하지만 해남고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 8명은 오전 8시께까지 해남공고 앞에 모여 있다가 뒤늦게 차로 10여 분 거리인 해남공고로 가는 등 9명이 시험장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또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던 수험생 17명이 입실 완료시간에 쫓겨 출근하던 승용차를 얻어탄 것을 비롯, 전남에선 수험생 98명이 지각·수험표 미지참·고사장 착오 등으로 경찰 도움을 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험생도…

엄마도…

간절한 기도

수능시험 시작 종이 울리기 직전, 광주 대성여고에서의 두 풍경.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수험생과 교문 밖 어머니의 얼굴에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옷깃 세우고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11월 16일 (음 10월 7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5~13℃
목 포	구름 조금	7~14℃
여 수	구름 조금	9~15℃
완 도	구름 조금	7~14℃
구 례	구름 조금	2~14℃
해 남	구름 조금	3~14℃
장 흥	구름 조금	3~14℃
고 흥	구름 조금	4~15℃
순 천	구름 조금	2~14℃
영 광	구름 조금	5~13℃
진 도	구름 조금	7~14℃
전 주	구름 조금	4~12℃
남 원	구름 조금	0~12℃
흑산도	구름 조금	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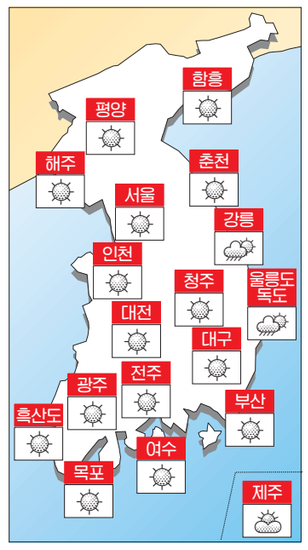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5:33 18:21 썰물 10:42 23:44
여 수 밀물 12:44 --:-- 썰물 05:48 19:07

▲해뜸 07:07 ▲해짐 17:26 ▲달뜸 12:20 ▲달짐 22:3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날 씨						
최저/최고	4/12	0/9	2/12	3/11	2/12	3/13



27일간 3단계 채점…내달 12일 성적 통보

■수능 채점 어떻게

전국 980개 시험장에서 수거된 수험생들의 답안지는 15일 밤 9시부터 16일까지 수능 출제와 채점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운송된다.

답안지가 모두 도착하면 곧바로 27일간의 채점작업에 들어가게 되며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5~19일) 및 이의처리 기간(20~27일)을 거쳐 다음달 12일에 최종 성적이 수험생들에게 통보된다.

채점은 답안지 개봉 후 수작업을 통해 답안지를 점검하는 1단계, 컴퓨터로 답안지를 판독하는 2단계, 성적표를 출력해 분석하는 3단계를 거친다.

수능출제에 동원된 인력 650여 명 외에 채점단계에 투입되는 인력만 해도 170여명에 달한다. 1단계 채점에서는 답안지에 마킹을 하지 않았거나(블랭크) 아니면 한 개 문항에 이중으로 답을 표시한 경우(더블마킹) 등을 일일이 손으로 체크하는 'B·D 작업'을 통해 잘못된 답안지를 가려낸다. 1단계가 끝나면 전산 컴퓨터 3대로 3차례에 걸쳐 답안지를 판독하고 모두 이상이 없는 경우 성적표를 출력, 분석 작업에 들어간다.

교수·교사·학부모단체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채점위원회는 채점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사항, 정답처리 여부 등에 대한 심사와 결정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인쇄된 성적표는 다음달 1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채점결과 발표와 함께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전달된다.

/연합뉴스

전남대 MBA 모집
19~23일 원서접수

지난해 설립 당시 '지방대 최초의 MBA', '전 과목 영어 강의' 등으로 관심을 끈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과정이 200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입학은 2008년 8월이다.

12월1일 영어 필답고사(공인 성적 제출시 면제)와 심층면접이 이뤄진다. 영어와 면접이 같은 비율로 반영된다. 최종합격자는 12월14일 발표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주간 40명, 야간·주말반 60명 등 모두 100명이다.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까지 6개월간 원서 독해능력, 작문능력을 높이고 경영 관련 기초 지식을 갖추도록 영어독해 및 작문 강좌, 해외 명사 초청 특강 등이 실시된다. 문의 062-530-1502.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